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동향

- I. 주요국 경제 동향
- II. 국내 경제 동향
- III.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 IV. 국제자원시장 동향
- V. 당행 주요 지원 산업 동향

작성

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



작 성

선임연구원 양종서
(3779-6679)
flydon@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강정화
(6255-5327)
nicekang@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김윤지
(3779-6677)
yzkim@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성동원
(3779-6680)
dwsung@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이미혜
(3779-6656)
mihyelee@koreaexim.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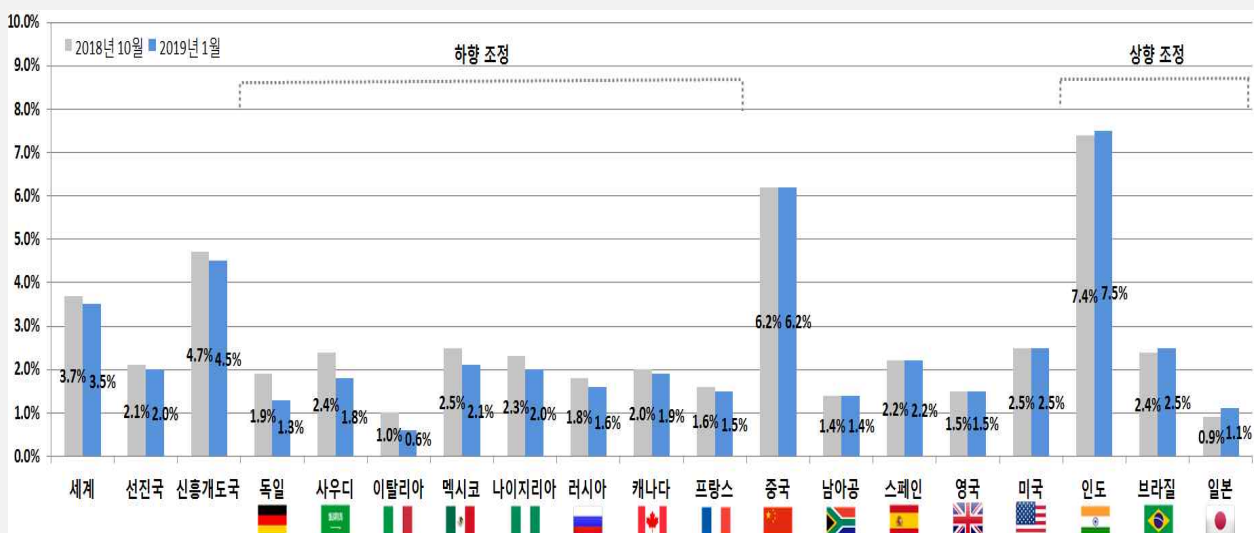
조 사 역 홍성준
(6255-5709)
sj_hong@koreaexim.go.kr

<Chart of the Month>

□ IMF 2019년 세계 경제성장 전망 하향 조정(3.7%→3.5%)

- 무역정책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심리 악화 속에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둔화된 경제 모멘텀 반영하여 16개국 성장 전망 하향 조정
 - 선진국(2.1%→2.0%) 및 신흥개도국(4.7%→4.5%) 모두 경제성장 전망 하향 조정
 - 일본, 인도, 브라질 경제성장 전망은 소폭 상향 조정한 반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로존 국가 중심으로 경제성장 전망 하향 조정
 - 무역갈등 증폭, "no-deal" 브렉시트,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등 경기 하방리스크 상존
- 추가 경기 둔화 방지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해 다자적 협력 및 정책적 대응 촉구
 - 규칙에 기반한 무역 시스템 구축 등 무역 관련 협력, 금융규제 개혁·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 글로벌 경제통합을 위한 다자 협력 지속
 - 선진국의 경우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참여 제고,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 재정 완충 여력 보강 등의 정책적 대응 필요
 - 개발도상국의 경우 거시건전성 체계 강화,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 지속가능한 부채 비율 유지를 위한 재정정책 운용 권고

IMF 세계경제전망 수정('19.1)



자료 : IMF

I. 주요국 경제 동향

1. 미국

□ 연방정부 섣다운 장기화로 경제성장 둔화 우려

- (산업동향) 12월 산업생산은 제조업과 광공업 생산 증가로 전월대비 증가, ISM 제조업지수는 신규 주문, 생산, 수주잔량 등에서 하락세를 보이며 전월대비 감소

* ISM 제조업지수(기준=50): ('18.9) 59.8 → (10) 57.7 → (11) 59.3 → (12) 54.1

- (고용·물가) 12월 실업률은 전월대비 0.2%p 상승한 3.9%, 소비자물가는 주거 및 교통비용 상승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9% 증가, 11월 근원PCE물가지수는 연준 목표치(2%) 미달

* 근원PCE물가지수 증가율(% , 전년동월대비): ('18.8) 1.9 → (9) 2.0 → (10) 1.8 → (11) 1.9

- 최근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연방정부 섣다운으로, 약 6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 추정(S&P)

2. 중국

□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 둔화 등으로 2018년 GDP 성장률 28년래 최저치 기록(6.6%)

- (산업동향) 12월 산업생산은 시장예상치(5.3%)를 상회하며 전년동기대비 5.7% 증가,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8.1% 증가, 제조업 PMI*가 2016년 7월 이후 처음으로 경기확장 기준선(50) 하회하며 제조업 경기 위축

* 제조업 PMI(기준=50): ('18.9) 50.8 → (10) 50.2 → (11) 50.0 → (12) 49.4

- (수출입) 12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4% 감소한 2,213억 달러, 수입은 7.6% 감소한 1,642억 달러로 수출입 모두 감소 전환(대미 무역흑자(상품) : 299억 달러)
- 위안화 기준으로는 12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0% 증가,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3% 감소
- (물가) 12월 소비자물가는 식품, 의료 분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9% 상승

3. 유로존

□ 글로벌 무역분쟁과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로 생산·수출 등 경제지표 둔화

- (산업동향) 11월 산업생산은 자동차 등 생산 감소로 전월대비 1.7% 감소(2016년 2월 이후 최대폭), 소매판매는 의류와 전자제품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 12월 제조업 PMI*는 2018년 7월 이후 최저 수준

* 제조업 PMI(기준=50): ('18.9) 53.2 → (10) 52.0 → (11) 51.8 → (12) 51.4

- (수출입) 11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3% 감소한 2,173억 달러, 수입은 0.6% 감소한 2,002억 달러로 171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 유로화 기준으로는 11월 수출, 수입 각각 전년동기대비 1.6%, 4.5% 증가
- (고용·물가) 11월 실업률은 7.9%로 2008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 11월 소비자 물가는 서비스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6% 상승, 에너지와 비가공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은 전월과 동일한 1.1% 상승

4. 일본

□ 중국 경기 둔화 영향으로 생산·소비·수출 등 실물지표 둔화

- (산업동향) 11월 산업생산은 일반기계, 전자부품 등 생산 감소로 전월대비 1.0% 감소, 소매판매는 연료판매 감소 등으로 전월대비 1.1% 감소, 12월 제조업 PMI*는 전월대비 소폭 상승

* 제조업 PMI(기준=50): ('18.9) 52.5 → (10) 52.9 → (11) 52.2 → (12) 52.6

- (수출입) 12월 수출은 일반기계와 전자제품 수출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0.5% 감소한 611억 달러, 수입은 원유, LNG 등 에너지 수입 확대에 3.6% 증가한 627억 달러 기록
- 엔화 기준으로는 12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8% 감소, 수입은 1.9% 증가
- (고용·물가) 11월 실업률은 고용 호조 지속에 따른 자발적 구직자 증가로 전월 대비 0.1%p 상승한 2.5%,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8% 상승하며 저물가 지속
- 11월 유효구인배율은 1.63배(구직자 100명당 163개 일자리)로 상승하며 구인난 심화

해외 경제 주요 지표

(증감률, %)

구 분		2016	2017			2018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미 국	GDP성장률(전기비)	1.6	2.2	0.7	0.6	-	0.5	1.0	0.8	-	-	-	-
	산업생산(전기비)	△1.9	1.6	△0.4	1.9	4.0	0.6	1.3	1.2	0.9	0.2	0.4	0.3
	소매판매(전기비)	2.9	4.7	1.1	2.3	-	0.4	1.8	1.1	-	1.1	0.2	-
	수출(전년동기비)	△2.2	6.1	4.6	7.8	-	7.1	9.6	6.8	-	6.3	-	-
	수입(전년동기비)	△1.7	6.8	5.4	8.4	-	8.5	7.5	9.2	-	8.5	-	-
	실업률	4.9	4.4	4.3	4.1	3.9	4.1	3.9	3.8	3.8	3.8	3.7	3.9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3	2.1	2.0	2.1	2.4	2.3	2.6	2.6	2.2	2.5	2.2	1.9
유 로 지 역	GDP성장률(전기비)	1.9	2.4	0.7	0.7	-	0.4	0.4	0.2	-	-	-	-
	산업생산(전기비)	1.6	3.0	1.6	1.4	-	△0.7	0.1	△0.1	-	0.1	△1.7	-
	소매판매(전기비)	1.6	2.4	0.5	0.3	-	0.1	0.8	0.0	-	0.6	0.6	-
	수출(전년동기비)	0.3	11.0	13.5	18.7	-	19.0	9.6	2.9	-	4.2	△3.3	-
	수입(전년동기비)	△1.2	13.9	15.4	20.6	-	19.0	11.6	7.8	-	7.4	△0.6	-
	실업률	10.0	9.1	9.0	8.7	-	8.5	8.3	8.0	-	8.0	7.9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2	1.5	1.4	1.4	1.7	1.2	1.7	2.1	1.9	2.2	1.9	1.6
일 본	GDP성장률(전기비)	1.0	1.7	0.7	0.4	-	△0.3	0.7	△0.6	-	-	-	-
	산업생산(전기비)	0.2	2.9	△0.1	1.2	-	△1.1	1.2	△1.4	-	2.9	△1.0	-
	소매판매(전기비)	△0.6	1.9	△0.4	6.9	-	△5.4	0.5	0.5	-	3.5	1.5	-
	수출(전년동기비)	2.3	9.3	6.1	12.6	5.7	9.3	9.7	3.4	0.9	5.2	△1.9	△0.5
	수입(전년동기비)	△6.5	11.2	6.7	15.4	10.9	12.8	10.5	10.9	9.5	15.4	9.7	3.6
	실업률	3.1	2.8	2.8	2.7	-	2.5	2.4	2.4	-	2.4	2.5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1	0.5	0.6	0.6	1.0	1.3	0.7	1.1	0.8	1.4	0.8	0.3
중 국	GDP성장률(전기비)	6.7	6.9	1.7	1.6	6.6	1.5	1.7	1.6	1.5	-	-	-
	산업생산(전년동기비)	6.0	6.6	6.3	6.2	6.1	6.1	6.6	6.0	5.7	5.9	5.4	5.7
	소매판매(전년동기비)	10.4	10.2	10.3	9.9	9.0	9.7	9.0	9.0	8.3	8.6	8.1	8.2
	수출(전년동기비)	△6.6	6.5	6.1	9.4	9.9	13.7	11.5	11.7	4.0	14.3	3.9	△4.4
	수입(전년동기비)	△5.3	16.1	15.1	13.2	15.8	19.4	20.6	20.4	4.4	20.3	2.9	△7.6
	실업률 ¹⁾	4.0	3.9	4.0	3.9	-	3.9	3.8	3.8	-	-	-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0	1.6	1.6	1.8	2.1	2.2	1.8	2.3	2.2	2.5	2.2	1.9

주 : 1)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실업률은 조사실업률이 아닌 등기실업률로, 비농업호구·나이제한·노동능력 보유·실업보험 납부기간 1년 이상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자로 등록 가능

2)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자료 : Bloomberg,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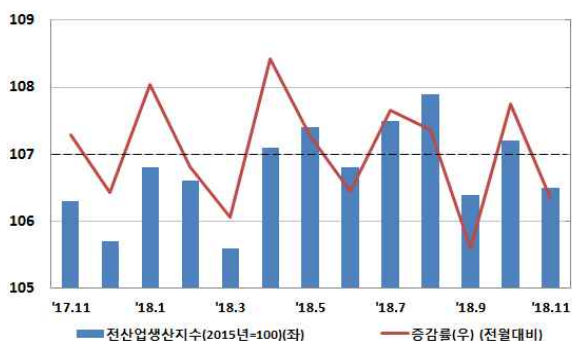
Ⅱ. 국내 경제 동향

1. 산업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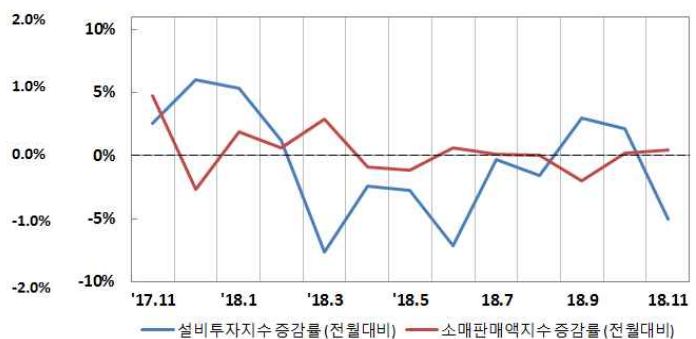
□ 소비 제외 생산·투자·경기 지표 동반 부진

- (생산) 전산업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모두 전월대비 감소
 - 광공업생산은 반도체, 통신·방송장비 등이 줄어 전월대비 1.7% 감소, 서비스업생산은 금융·보험, 부동산 등이 줄어 전월대비 0.2% 감소
- (소비) 소매판매는 통신기기·컴퓨터, 음식료품 등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
 - 11월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3.8%) 판매는 줄었으나,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3.3%),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1%)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0.5% 증가
- (투자) 설비투자는 기계류 및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전월대비 감소,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공사 실적 부진으로 전월대비 감소
 - 11월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6.1%), 자동차 등 운송장비(△3.1%) 투자 부진으로 전월대비 5.1% 감소, 기계수주는 공공 및 민간에서 모두 악화되며 전년동월대비 21.0% 감소
 - 11월 건설기성(불변)은 최근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 수주 부진으로 전월대비 0.9% 감소
- (경기) 11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2p 하락한 98.2,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하락한 98.6(2015=100)을 기록하며 재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 하강 국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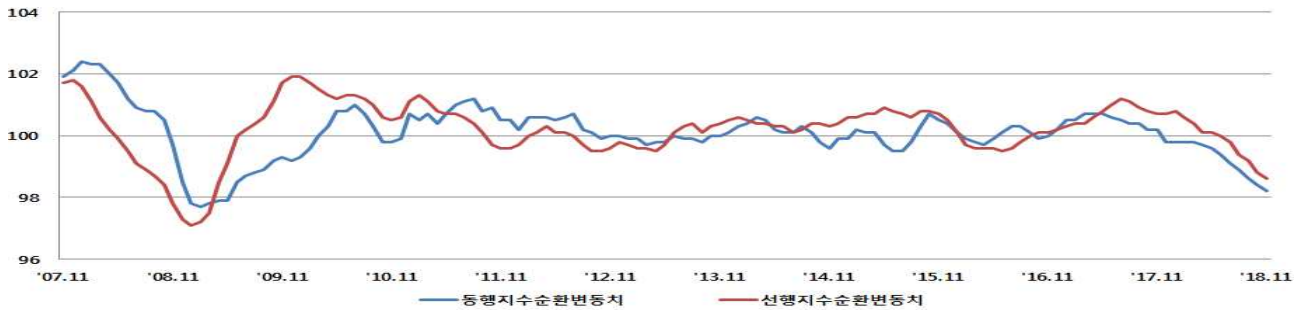
전산업생산지수



소비·투자지수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



2. 수출입 현황

□ 수출은 세계교역 증가세 둔화와 주력제품 단가 하락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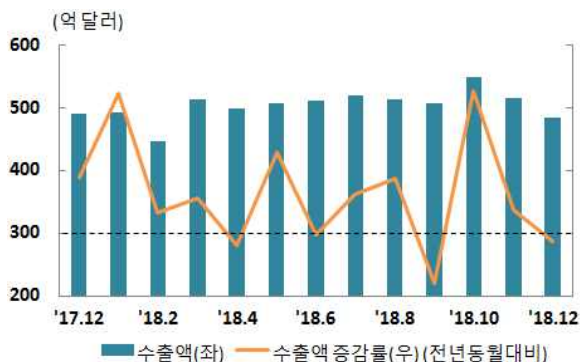
- 12월 수출은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및 석유제품 등 주력제품 단가 하락으로 전년동월대비 1.3% 감소한 484억 달러 기록
- 자동차(27.2%)·선박(26.4%)·석유제품(8.4%) 등에서 증가, 반도체(Δ 8.3%)·가전(Δ 11.7%)·무선통신기기(Δ 33.7%) 등에서 감소

□ 수입은 원자재 수입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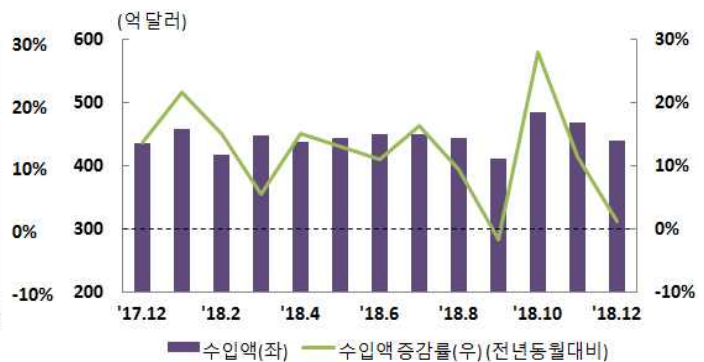
- 12월 수입은 주요 에너지자원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2% 증가한 440억 달러 기록
- 주요 에너지자원 수입은 원유*(Δ 4.2%) 수입이 감소한 반면, 석유제품(27.9%)·가스(37.1%)·석탄(1.0%)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5.7% 증가

* 전년동월대비 원유 도입단가(10월) 5.9% 상승, 수입액 4.2% 감소

수출 추이



수입 추이



3. 고용 및 물가

□ 고용은 고용률 하락과 실업률 상승 등 부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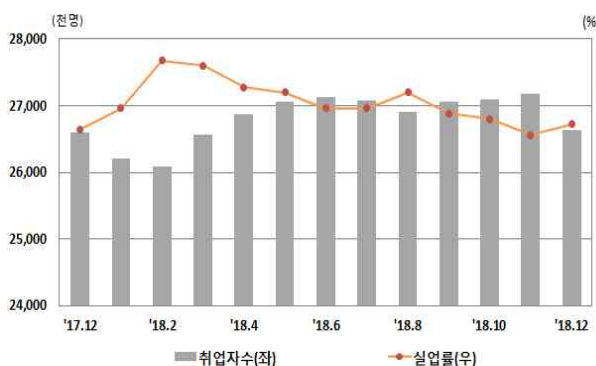
-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만 4천명 증가하며 전월대비(16만 5천명) 증가폭 축소
- 12월 취업자는 2,664만명, 고용률(OECD기준)은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한 66.5%
- 제조업,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농림어업 등의 증가세로 12월 전체 취업자 수는 3만 4천명 증가
- 실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만 1천명 증가하며 실업률 상승
- 12월 실업자 94만 9천명,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한 3.4% 기록
- 12월 청년층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한 8.6%, 체감실업률은 1.0%p 상승한 22.6%, 고용률은 1.0%p 상승한 42.7% 기록

□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3% 상승, 전월대비 0.3%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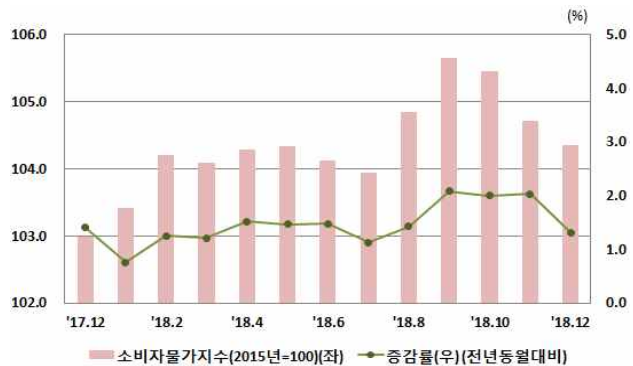
-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3% 상승하며 2018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 기록
- 식료품·비주류음료(4.2%), 음식·숙박(3.1%) 등 9개 부문 상승, 보건(△0.3%), 통신(△1.9%), 교통(△0.9%)은 전년동월대비 하락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3.3%)에서 상승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3% 상승

* 전체 460개 품목 중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으로 작성

고용 추이



소비자물가 추이



국내 경제 주요 지표

구 분	2016	2017			2018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GDP성장률(전기비%)	2.9	3.1	1.4	△0.2	2.7	1.0	0.6	0.6	1.0	-	-	-
전산업생산지수¹⁾	103.0	105.5	106.2	106.0	-	106.3	107.1	107.3	-	107.2	106.5	-
증감률(전기비%)	3.0	2.3	0.9	△0.2	-	0.3	0.8	0.2	-	0.8	△0.7	-
소매판매액지수¹⁾	103.9	105.9	106.0	107.0	-	110.2	111.0	110.4	-	109.1	109.6	-
증감률(전기비%)	3.9	1.9	0.2	0.9	-	3.0	0.7	△0.5	-	0.2	0.5	-
설비투자지수¹⁾	110.7	126.3	128.6	126.4	-	137.0	121.9	114.4	-	118.6	112.6	-
증감률(전기비%)	△1.3	14.1	0.2	△1.7	-	8.4	△11.0	△6.2	-	2.2	△5.1	-
수출액(억불)²⁾	4,954	5,737	1,511	1,435	6,052	1,451	1,516	1,536	1,548	549	516	484
증감률(전년동기비%)	△5.9	15.8	24.0	8.4	5.5	9.8	3.1	1.7	7.9	22.5	3.8	△1.3
수입액(억불)²⁾	4,062	4,785	1,209	1,234	5,352	1,324	1,331	1,303	1,393	485	468	440
증감률(전년동기비%)	△6.9	17.8	17.9	11.6	11.8	13.7	13.0	7.8	12.9	28.1	11.4	1.2
실업률³⁾(%)	3.7	3.7	3.4	3.2	3.8	4.3	3.9	3.8	3.4	3.5	3.2	3.4
소비자물가지수⁴⁾	101.0	102.9	103.2	103.0	104.5	103.9	104.3	104.8	104.8	105.5	104.7	104.4
증감률(전년동기비%)	1.0	1.9	2.2	1.4	1.5	1.1	1.5	1.6	1.8	2.0	2.0	1.3

주 : 1) 계절조정지수(seasonally adjusted index, 2010년=100) 2)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수리일 기준
3) 원계열(original series) 4) 2015년=100

5)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자료 : 기획재정부, 통계청, 관세청

Ⅲ.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1. 금리 동향

□ 미국 장단기금리는 완화된 금리 인상 기조와 미중 무역협상 진전으로 보합세

-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시사 및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 따른 낙관론 확산 등으로 보합

- 미국 국채(3M,%): (12.3) 2.332 → (1.4) 2.407 → (1.14) 2.412 → (1.22) 2.393

- 미국 국채(10Y,%): (12.3) 2.970 → (1.4) 2.668 → (1.14) 2.702 → (1.22) 2.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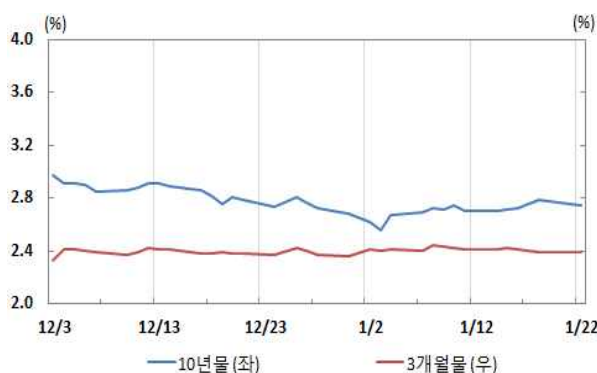
□ 한국 국고채금리는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보합세

-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변화와 국내 경기 둔화 지속에 따른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증가로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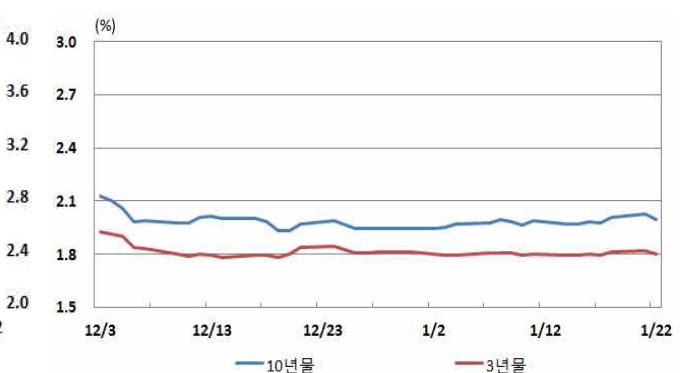
- 국고채(3Y,%): (12.3) 1.924 → (1.4) 1.797 → (1.14) 1.797 → (1.22) 1.803

- 국고채(10Y,%): (12.3) 2.128 → (1.4) 1.972 → (1.14) 1.973 → (1.22) 1.997

최근 미국 국채금리(10년물/3개월물)



최근 한국 국고채 금리(10년물/3년물)



2. 환율 동향

□ 유로화환율은 유로존 불확실성 증가로 하락세

- 1월 들어 미 연준의 통화정책 관망세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영국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과 독일 경제성장률 둔화** 등 유로존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증대로 하락 반전

* 브렉시트 합의안, 영국 하원에서 부결(1.15)

** 독일, 2018년 경제성장률(1.5%) 5년 만에 최저치 기록

- 달러/유로: (12.3) 1.135 → (1.4) 1.140 → (1.14) 1.147 → (1.22) 1.136

□ 엔화환율은 양적완화 정책 지속 등으로 보합세

- 일본 중앙은행(BOJ) 총재의 물가 목표(2%) 달성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발언 등으로 보합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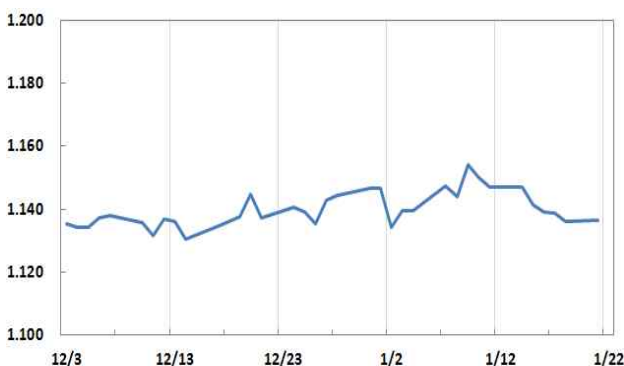
- 엔/달러: (12.3) 113.7 → (1.4) 108.5 → (1.14) 108.2 → (1.22) 109.4

□ 원달러환율은 1월말 한국은행 금통위 앞두고 보합세

- 무역수지 흑자 기조 지속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 금리인상 기조 변화에 따른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전망 등으로 보합세

- 원화/달러: (12.3) 1,111 → (1.4) 1,124 → (1.14) 1,123 → (1.22) 1,131

유로화환율(對달러)



달러환율(對원화, 對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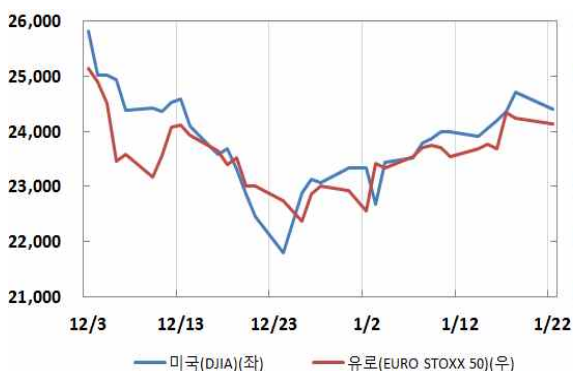
3. 주가 동향

□ 다우존스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기조 변경 가능성과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 따른 낙관론 확산 등으로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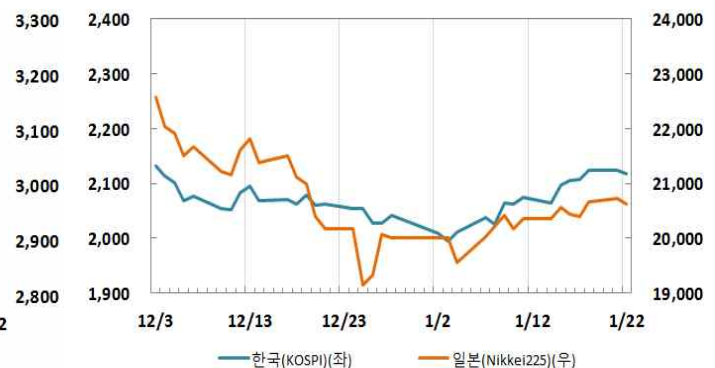
- 1월 들어 미 연방정부 섯다운 지속, 애플 실적 전망치 하향 등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급락했으나, 미 연준 금리인상 기조 완화와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 따라 상승 반전
- (코스피) 미 연준 통화정책 변경 시사와 미중 무역분쟁 우려 완화 등에 따른 기관투자자 매수세 등으로 상승세

구 분		'18.12.3	'19.1.4	'19.1.22
미국	Dow Jones	25,826	23,433	24,404
유로	Euro Stoxx	3,215	3,042	3,113
한국	KOSPI	2,132	2,010	2,118
일본	Nikkei225	22,575	19,562	20,623

주가지수(미국, 유로지역)



주가지수(한국, 일본)



국제 금융시장 주요지표

(기말 증가 기준)

구 분			2016	2017				2018				2019	
				1/4	2/4	3/4	4/4	1/4	2/4	3/4	4/4	1.22	
금리 (%)	정책	미 국 F F 금 리 ¹⁾	0.5-0.75	0.75-1.0	1.0-1.25		1.25-1.5	1.5-1.75	1.75-2.0	2.0-2.25	2.25-2.50		
		일 본 I O E R 금 리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유로존 MRO금리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국제	미 국 국 채(3 M) ²⁾	0.497	0.752	1.011	1.041	1.376	1.700	1.912	2.196	2.355	2.393	
		미 국 국 채(10 Y) ²⁾	2.444	2.387	2.304	2.334	2.405	2.739	2.860	3.061	2.684	2.739	
		일 본 국 채(10 Y) ³⁾	0.043	0.067	0.086	0.062	0.047	0.043	0.040	0.134	0.013	0.004	
	국내 ⁴⁾	국 고 채 (3 Y)	1.638	1.662	1.698	1.888	2.135	2.216	2.122	2.005	1.817	1.803	
		국 고 채 (1 0 Y)	2.074	2.177	2.214	2.379	2.469	2.624	2.556	2.357	1.948	1.997	
국제 환율 ⁵⁾			¥ / U S \$	117.0	111.4	112.4	112.5	112.7	106.3	110.8	113.7	109.7	109.4
			U S \$ / €	1.052	1.065	1.143	1.181	1.201	1.232	1.168	1.160	1.147	1.136
원화 환율 ⁵⁾			₩ / U S \$	1,206	1,118	1,144	1,145	1,067	1,064	1,115	1,109	1,111	1,131
			₩ / 1 0 0 ¥	1,031	1,004	1,019	1,018	947	1,000	1,007	976	1,017	1,029
주가 ⁵⁾			미 국 Dow Jones	19,763	20,663	21,350	22,405	24,719	24,103	24,271	26,458	23,327	24,404
			일 본 Nikkei225	19,114	18,909	20,033	20,356	22,765	21,454	22,305	24,120	20,015	20,623
			유로 Euro Stoxx	3,291	3,501	3,442	3,595	3,504	3,362	3,396	3,399	3,001	3,113
			코 스 피	2,026	2,160	2,392	2,394	2,467	2,446	2,326	2,343	2,041	2,118
			코 스 닥	631	619	669	653	798	871	818	822	676	695

주 : 1) '17.03.15, '17.06.14, '17.12.13, '18.03.21, '18.06.13, '18.09.26, '18.12.19 각각 0.25bp 인상

2) 블룸버그 집계(BGN, Bloomberg Generic Price) 미국 일반국채 수익률(3개월, 10년)

3) 일본 재무성, Japanese Government Bonds

4) 금융투자협회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5) 블룸버그

자료 : 블룸버그, 일본 재무성, 금융투자협회

IV. 국제자원시장 동향

1. 주요 에너지자원 가격

□ 유가는 12월말까지 하락세 지속 이후 배럴당 60달러 초반대 반등

- 공급과잉 및 경기둔화 우려 확대로 12월말까지 유가 하락세 지속
 - 러시아 12월 원유 생산량(1,142만 b/d) 역대 최고치 기록, 미국 주요 셰일지역 원유 생산량 증가세 지속 전망* 등 공급 과잉 우려 확대
 - * 미국 주요 셰일오일 생산 지역 2월 원유 생산량, 전월대비 6.2만b/d 증가한 8,179만b/d 예상(EIA)
 - 미국 주식 시장 하락세, 미국 연방정부 섯다운 등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둔화 우려도 유가 하락세에 일조하며 두바이유 12월말 배럴당 50달러선 붕괴(12.26일, 두바이유, \$49.52/bbl)
- 1월 들어 미중 무역갈등 완화, 미국 원유재고량 감소, OPEC+ 감산에 따른 공급 과잉 완화 기대감 등으로 유가 반등, 1월말 배럴당 60달러 초반대 기록
 - 1월 7~9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미중 차관급 무역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미중 무역갈등 완화 기대감 확대
 - 1월 첫째주 미국 원유재고는 전주대비 0.38% 감소한 4억 3,974만 배럴 기록

□ 천연가스 가격은 날씨예보에 따라 mmBtu당 3~3.5달러 범위에서 급등락 반복

-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동절기 날씨 예보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12월말 mmBtu당 3달러선까지 급락한 이후 1월 중순 추운 날씨 예보로 3달러 중반대로 상승했다가 1월말 들어 3달러선 하회

□ 연료탄 가격은 생산량 증가 불구 동절기 발전수요 증가로 톤당 100달러 선에서 보합

- 중국, 인도 등의 석탄 생산량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동절기 발전 수요에 따른 석탄 수입량 확대로, 석탄 가격이 하방 경직성을 보이며 톤당 100달러 수준에서 보합세

2. 주요 광물자원 가격

□ 전기동은 수요둔화 우려로 하락

-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미달러화 강세, 미중 무역분쟁 등 경기둔화, 중국 산업생산 및 제조업 PMI 부진 등으로 전기동 가격이 하락하여, 12월 중순 이후 톤당 6,000달러 하회

□ 니켈은 12월말까지 하락세, 1월 이후 수요 증가로 상승세 전환

- 미국 달러화 강세, 중국 경기 부진 등 거시경제 요인과 필리핀 니켈광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따른 공급 확대 전망 등으로 12월말까지 가격 하락세 지속
- 1월 이후 전기차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장치 수요 확대 등으로 니켈 가격 반등

* 중국 국영자동차 기업 BAIC 자회사인 BJEV(Beijing Electric Vehicle)의 연간 12만대 규모 전기차 생산 공장 건설 계획 등

□ 아연은 투자수요 위축으로 톤당 2,500달러대에서 보합

-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산업 경기 둔화로 고위험자산인 원자재 투자 회피 심리 등으로 아연 가격 보합세

□ 철광석은 공급 차질 우려,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등으로 상승

- 글로벌 공급차질 우려*와 중국 경기부양책 시행 기대감 등으로 가격 상승

* 1월 둘째주 Rio Tinto가 호주 Pilbara 지역에서 생산하는 철광석을 수출하는 주요 항구인 Cape Lambert 항구(연간 선적 능력 2.05억 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철광석 출하 지연

□ 우라늄은 파운드당 28~29달러 내외에서 보합

- 2018년 중 메이저 우라늄 생산기업(Cameco, Kazatomprom 등)의 감산 정책, 중국 신규 원전 건설, 일본 원전 재가동 정책 추진 효과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해 왔으나, 지난 11월 이후 가격 조정 국면에 진입하며 파운드당 28~29달러 수준에서 보합세

주요 자원가격 추이

(기말 증가 기준)

구 분		2016	2017	2018				2019
				1/4	2/4	3/4	4/4	1.22
유가 (\$/배럴)	Brent	56.82	66.87	69.34	79.23	82.73	53.80	61.50
	WTI	53.72	60.42	64.94	74.15	73.25	45.41	53.01
	Dubai	53.83	64.33	65.33	75.86	80.03	52.86	61.43
천연가스(\$/백만BTU*)		3.724	2.953	2.733	2.924	3.008	2.94	3.04
연료탄(전력용)(\$/ton)		92.00	104.88	91.36	115.3	113.03	100.68	99.81
우라늄(\$/lb)		20.4	23.9	21.0	22.7	27.5	28.9	29.00
전기동(\$/ton)		5,501	7,157	6,720	6,645	6,180	5,965	5,926
니켈(\$/ton)		10,035	12,260	13,245	14,910	12,480	10,595	11,615
아연(\$/ton)		2,563	3,289	3,309	2,948	2,573	2,511	2,602
철광석(\$/ton)		78.87	72.61	63.12	65.02	69.24	72.73	74.78

주 : 유가는 WTI유 선물 익월물/브렌트유 ICE 익월물/두바이유 현물가격, 천연가스/우라늄은 뉴욕 상업거래소(NYMEX), 연료탄은 뉴캐슬 FOB, 철광석은 Fines 현물가격으로 중국수입가 CFR, 전기동/니켈/아연은 런던금속거래소(LME), * BTU : British Thermal Unit

자료 : 국제금융센터, KoreaPDS

EIA의 국제유가 전망

(단위 : \$/bbl)

기준 유종	2018	2019				
	평균	1/4	2/4	3/4	4/4	평균
WTI	65.06	50.00	51.97	55.97	58.64	54.19
Brent	71.19	58.00	60.00	61.31	62.64	60.52

주 : 美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전망시기: 2018년 1월>, 회색부분이 전망치

V. 당행 주요 지원 산업 동향

1. 조선

□ 12월 조선 수주는 LNG선 수주 등으로 호조세

- 2018년 수주량은 전년대비 66.8% 증가한 1,263만CGT
- 12월 수주량은 150만CGT로 전년 동월대비 77.8% 증가
- 12월 수주는 LNG선 16척과 수에즈막스 탱커 6척 등 총 22척으로 특히, LNG선을 대거 수주하며 매우 양호한 월간 실적 기록
- 2018년 총 수주액은 전년대비 48.3% 증가한 259.4억 달러
- 12월 수주액은 전년 동월대비 92.8% 증가한 30.3억 달러

□ 12월 신조선 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03 point 상승한 129.91(Clarkson)

- 4분기 들어 신조선가격은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12월에도 지속

□ 2018년 선박(해양플랜트 포함) 수출액은 전년대비 49.6% 감소한 212.6억 달러

- 12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6.4% 증가한 32.0억 달러로 양호한 수준

선박 수주 및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누계	1/4	2/4	3/4	4/4	12월
수주실적	332.5 (△27.3)	241.2 (△27.5)	44.4 (△81.6)	174.8 (293.8)	259.4 (48.3)	74.0 (259.9)	53.5 (△20.6)	84.3 (74.1)	47.5 (23.7)	30.3 (92.8)
수출실적	398.9 (7.3)	401.7 (0.7)	342.7 (△14.6)	421.8 (23.1)	212.6 (△49.6)	69.0 (△1.1)	39.1 (△76.9)	36.9 (△68.3)	67.6 (2.0)	32.0 (26.4)

주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Clarkson, 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2. 자원개발

□ 2018년 글로벌 석유 업스트림 부문 M&A 거래 감소, 미국은 4년래 최대치 기록

- 글로벌 M&A 거래규모는 1,350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18% 감소
 - 1분기와 3분기 거래가 활발했으나, 4분기 유가 하락과 함께 거래 급감
 - 9월 캐나다 Husky가 오일샌드 기업인 Meg를 적대적 인수(49.5억 달러)한 것이 2018년 M&A 거래 중 최대 규모
 - 석유기업들이 2014~2016년 저유가 시기와 같이 자산 매입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호가 차이로 인해 거래 성사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
- 한편 미국 석유 업스트림 부문 M&A 거래액은 2018년 800억 달러 기록하며 전년대비 26% 증가
 - 셰일부문이 미국 M&A 거래 증가 주도, 특히 하반기에는 대형거래들이 연달아 성사되며 540억 달러 기록
 - 종전에는 대규모 미개발 자산 매입을 중심으로 M&A 거래가 이루어진데 반해 2018년은 현금 흐름 확대를 위한 회사 인수·합병 중심으로 이루어짐
- 2019년 유가변동성 확대에도 불구, 카타르 LNG 및 브라질 심해자산 등에 대한 석유기업들의 관심이 지속될 전망
 - 사모펀드사들은 자산 가치에 대한 견해 차이 확대로 매수자 물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메이저 기업 중심으로 자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

3. 해외건설

□ 12월 해외건설 수주는 전년동월대비 6.9% 증가한 59억 달러

- 2018년 12월 중동 수주 부진에도 불구하고, 유럽 수주가 크게 증가하면서 12월 수주 견인
 - 유럽 수주액은 전년동월대비 152배 증가한 32.2억달러 기록, 2018년 12월 수주액 58.7억 달러 중 55% 차지
- 2년 연속 300억달러 하회했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18년 들어 300억달러 회복
 - 중동 지역 수주가 전년대비 36.9% 감소했으나, 아시아 수주액이 29.7% 증가하면서 중동 수주 부진 상쇄
 - 2018년 중 플랜트 수주는 7.5% 감소한 184억달러 기록했으며, 인프라 등 토목 수주는 39.3% 증가한 71.6억달러 기록
- 2019년 해외건설 수주는 중동 지역 경쟁 격화 등으로 수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나, 미청구공사액 감소 등 수익성 점진적 개선 전망

해외건설 수주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누계	1/4	2/4	3/4	4/4	12월
수주실적	660 (1.2)	461 (△30.1)	282 (△38.8)	290 (2.8)	321.2 (10.7)	102.3 (9.1)	73.0 (5.0)	47.1 (△6.0)	98.8 (28.6)	58.7 (6.9)

주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해외건설협회

4. ICT

□ 12월 ICT 수출은 반도체 수출증가율 둔화로 전년동월대비 10.0% 감소

- 12월 ICT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0.0% 감소한 159.3억 달러, 수입은 3.6% 증가한 93.0억 달러로 66.4억 달러 흑자 기록
-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 수요 둔화와 가격하락으로 27개월만에 수출증가율이 감소세로 전환되며 전월동월대비 9.2% 감소한 89.6억 달러 기록
- 디스플레이는 OLED(12.6%)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LCD(Δ 20.1%) 수출 하락세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6.4% 감소한 21.3억 달러 기록
- 휴대폰은 완제품(Δ 5.0%)과 부분품(Δ 47.3%) 수출 동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동월대비 34.7% 감소한 9.0억 달러 기록

ICT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누계	1/4	2/4	3/4	10월	11월	12월
수출실적	1,762.3 (2.1)	1,728.8 (Δ 1.9)	1,625.0 (Δ 6.0)	1,976.1 (21.6)	2,203.8 (11.5)	523.1 (18.9)	546.5 (16.7)	590.2 (12.6)	202.1 (12.3)	182.9 (Δ 1.7)	159.3 (Δ 10.0)

주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5. 태양광

□ 12월 태양광 수출은 폴리실리콘 및 모듈 모두 전년대비 감소세 지속

- 2018년 12월 폴리실리콘 및 모듈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0% 감소하며 수출 부진 지속
 - 태양광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 과잉 및 제품 가격 약세 지속
- 2018년 폴리실리콘 수출은 전년대비 33.6% 감소한 8.3억 달러
 - 1월까지 강세를 보였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3월 이후 약세 전환돼 11월 이후 사상 최저치인 \$9/kg대를 기록하는 등 약세가 지속되며 수출액 감소
- 2018년 모듈 수출액은 전년대비 12.6% 감소한 16.7억 달러
 - 모듈 가격이 20% 이상 급락했음에도, 세계 태양광시장이 전년대비 5% 성장함에 따라 수출 선방, 2019년 세계 태양광시장이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9년 수출은 전년대비 개선 전망

태양광 모듈 및 폴리실리콘 수출실적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누계	1/4	2/4	3/4	4/4	12월
태양전지/ 모듈	9.7 (7.4)	13.2 (△36.1)	18.9 (43.2)	19.1 (1.6)	16.7 (△12.6)	5.33 (50.5)	3.66 (△12.0)	4.17 (△24.3)	3.59 (△18.7)	1.1 (△50.0)
폴리실리콘/ 잉곳	13.1 (67.5)	12.7 (△3.6)	12.6 (△0.4)	12.5 (△0.8)	8.3 (△33.6)	2.74 (△2.9)	2.46 (△10.5)	1.51 (△54.2)	1.63 (△55.2)	0.55 (△52.9)

주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6. 중소기업

□ 수출 · 내수 동반 부진으로 생산지수 · 가동률 하락

- 11월 중소기업 생산지수 전월대비 1.8%, 평균가동률 0.2%p 하락
-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전월(108.6)대비 1.8%, 전년동월(109.1)보다 2.3% 하락한 106.6 기록
- 가동률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기장비' 등 11개 업종에서는 전월보다 상승했지만,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및 통신장비' 등 9개 업종에서는 하락해, 전월(73.7%) 대비 0.2%p 하락, 전년동월과는 동일한 73.5%
- 12월 중소기업 업황실적 SBHI(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11월보다 0.6p 하락한 80.5
- * SBHI(Small Business Health Index)는 중소기업 경기지수(실적기준)로 100이상이면 전월보다 호전, 100미만이면 전월보다 악화, 100이면 전월과 보합수준(2010년 이후 최저치 74.3, 최고치 95.6)
- 내수판매(81.2→79.5), 수출판매(90.0→84.7), 자금사정(77.1→77.0) 등 전부문에서 하락
- 12월 중소기업대출(4.4조원 → △4.4조원)은 연말 기업의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환 및 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상각 등으로 감소

중소기업 주요 업황 지수 추이

구 분	구 분 (단위)	2016				2017				2018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12월
생산지수	(2015년 =100)	96.0 (0.8)	102.6 (1.2)	99.5 (1.3)	110.7 (5.3)	102.2 (6.4)	107.7 (4.9)	106.0 (6.5)	103.7 (-6.3)	97.7 (-4.4)	104.9 (-2.6)	99.6 (-6.0)	108.6 (14.0)	106.6 (-2.3)	-
평균 가동률	(%)	72.0	74.0	73.3	73.6	72.7	73.2	73.2	73.1	72.3	73.5	72.7	73.7	73.5	-
자금대출	(조원)	9.5	10.1	9.5	1.5	10.3	10.6	14.4	6.2	12.4	8.6	13.9	2.7	4.4	-4.4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 (SBHI)	경기전반	78.1	86.6	83.7	81.1	77.9	84.2	84.5	84.0	79.6	86.1	80.7	80.6	81.1	80.5
	내수판매	78.1	85.9	83.1	81.9	77.2	83.7	83.6	82.9	79.4	85.0	79.6	80.8	81.2	79.5
	수출판매	77.6	86.7	86.0	84.9	86.8	87.9	88.8	88.4	85.4	90.2	89.3	83.6	90.0	84.7
	자금사정	77.0	82.8	81.5	79.0	75.5	79.2	80.1	79.4	75.5	79.9	76.9	77.6	77.1	77.0

주 : 1) 괄호 안은 전년동월·동기 대비 증감률

2) 자금대출은 예금은행 원화대출(은행신탁 포함) 금액으로 기간 중 말잔 증감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중소기업중앙회